

오모리카쓰야마 유적

아오모리현 히로사키시에 자리한 오모리카쓰야마 유적에는 1,000 개 이상의 돌이 77 곳에 늘어서 환상 열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1,000 년경에 만들어진 이 환상 열석은 이와키산에서 이어진 구릉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유적에서는 쓰가루 국정공원의 일부이기도 한 이와키산과 그 주변 지역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가는 방법

이 유적으로는 숲 속의 산책로(계단 있음)나 완만하게 조성된 배리어프리 길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숲 속에 마련된 산책로를 이용하면 밤나무 등 다양한 과일 나무들 사이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나무들은 이 지역에 정착한 선사 시대 사람들에게 식량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두 길 모두 이와키산을 바라볼 수 있는 탁 트인 공간으로 연결됩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성토(흙무지) 위에 있는 이 널찍한 부지의 중심에는 환상 열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환상 열석 중심부에서는 이와키산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와키산과 환상 열석의 위치

이와키산은 후지산과 비슷한 형태의 성층 화산으로 좌우 대칭의 완만한 경사면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산의 모양이 후지산을 닮았다고 해서 지역명인 ‘쓰가루’를 붙여 ‘쓰가루 후지’라고도 불립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신앙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이 이와키산 정상에는 신사가 세워져 있습니다. 동지에 환상 열석에서 건너편의 이와키산을 바라보면 정확히 산 정상으로 해가 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 지역에 살았던 선사 시대 사람들에게 이와키산이 특히 중요한 존재였음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장, 환상 열석

이 유적의 곳곳에서 갈돌, 석판(판 모양의 석제품), 토우 등이 발굴되었습니다. 제사가 행해졌던 다른 유적과 같은 모양의 유물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이 환상 열석도 제사를 지내는 신앙적인 장소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수혈식 건물 터

이 탁 트인 부지 끝에서 원형 수혈식 건물(지름 13m)이 존재했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수혈식 건물 터의 크기와 이 유적에서 발견된 수혈식 건물 터가 단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비추어 보면, 이 건물은 제사를 지내는 장소로서 마을의 중심적인 존재였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매장물과 관련 유적

오모리카쓰야마 유적 주변에서 발견된 출토품은 이 유적에서 차로 10 분 거리에 있는 스소노 지구 체육문화교류센터[링크]의 로비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출토품의 일부는 이 지역의 다른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과 함께 히로사키시립박물관[링크]에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일본 북부에서 제사가 행해졌던 다른 유적으로는 고마키노 유적[링크](아오모리현), 이세도타이 유적[링크](아키타현), 오유 환상 열석[링크](아키타현) 등이 있습니다.